

한화 FI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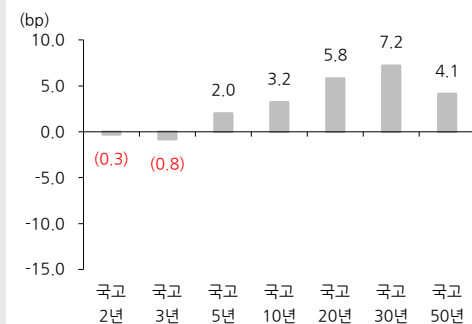
조사모삼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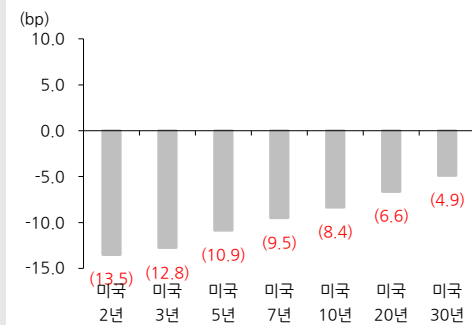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하는 기정사실

다수 의견으로 올라선 인하 Forward Guidance, 전반적인 불확실성 감소와 물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고, ‘충분한’ 긴축 문구가 삭제된 성명서 등 8월 금통위는 인하가 머지않았음을 시사

기자회견은 대체로 매파적이었지만 “물가와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고”, “통화정책의 목표는 금융안정이지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을 특정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총재의 발언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는 부분

이번 금통위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대비 시장 금리 레벨은 과도하다는 입장은 유지”하며,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정도”라고 한 번 더 관련 멘트가 나왔지만 어차피 쏠림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 이 부분에 크게 힘 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이전 발언과 같은 내용. 추가적으로 강경해졌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부재하기 때문. 이는 분명 시장에 나쁘지 않은 소식

한국은행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국은행이 시장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총재 기자회견 후반부. “기준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설정할 때인데, 이 중립금리는 기존 수준보다 높을 것”이 포인트. 지난 주 전망 자료에서의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내용

크게 바뀌지 않을 통화정책 여건, 올라간 중립금리를 고려했을 때 다가올 인하 사이클에서의 종점은 현재의 전망치들보다 높을 공산이 큼. 그렇다면 지금 시장 금리는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까지 반영한 레벨일 것이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 룬이 작아짐을 의미. 나중에 내려갈 뒀을 지금 다 내려간 셈. ‘조사모삼’ 장세인 것

통화당국은 당장의 금리 하락세를 멈출 힘도, 그럴 생각도 크게 없어 보임. 그러나 내려갈 수 있는 하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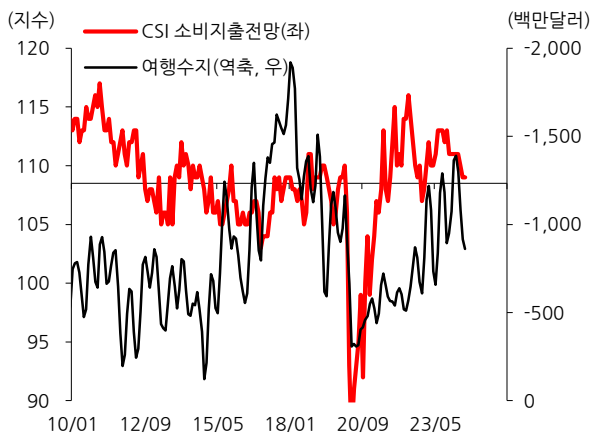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하단은 막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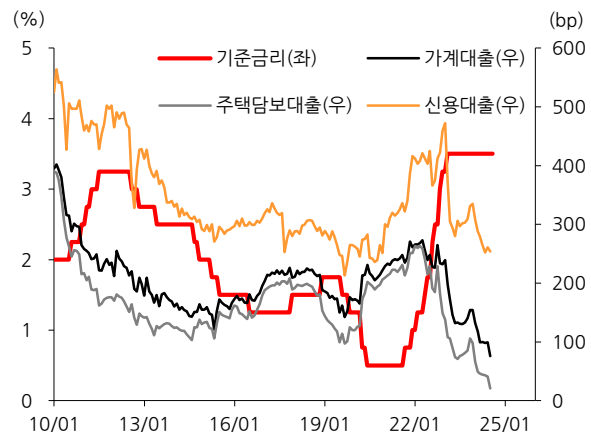
인하는 기정사실	조만간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다수 의견으로 올라선 인하 Forward Guidance, 전반적인 불확실성 감소와 물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고, ‘충분한’ 긴축 문구가 삭제된 성명서 등 8월 금통위는 인하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보여진다.
물가와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 조성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색채는 매파적이었지만 “물가와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고”, “통화정책의 목표는 금융안정이지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총재의 발언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금리 레벨 관련 반응	당사는 이전 자료들을 통해 7월 금통위에서 과도하게 하락한 금리에 대한 총재의 피드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대비 시장 금리 레벨은 과도하다는 입장은 유지”하며,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정도”라고 한번 더 관련 멘트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차피 쏠림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 이 부분에 크게 힘 쏟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이는 분명 시장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자회견 말미에 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자회견 말미에 나왔다고 판단한다. “기준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설정할 때인데, 이 중립금리는 기존 수준보다 높을 것”이 포인트다. 지난 주 전망 자료에서의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꾸준할 인하 기대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연내 2회 인하 전망보다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기대는 한번 인하하면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통위에 여러 주목할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지만 한국은행은 꾸준한 인하 기대에 분명히 경고성 시그널을 보냈다.

[그림4] 안에는 안 써도 바깥에서는 잘 씀. 돈이 없는게 아님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준금리 유지에도 이자 부담은 25bp 인하한 정도



주: 대출은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어차피 경제가 쉽게
나빠지지도,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기도 어려움

2025년 경제와 물가 전망치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내년에도 딱히 통화정책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2.1%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 2.1%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목표 물가와 괴리가 있다. 경기가 쉽게 꺾이지도, 물가가 연초에 바로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추정 중립금리는
1.8~3.3%에 금융안정을
고려, 더 높을 것

한국은행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명목 중립금리(2.0% 물가 가정)는 2000년 1분기 3.4~5.1%에서 2020년 1분기 1.1~2.5%로 꾸준히 하락한 뒤 반등, 2024년 1분기 기준 1.8~3.3%으로 추정된다. 상단과 현재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20bp에 불과하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추정 수준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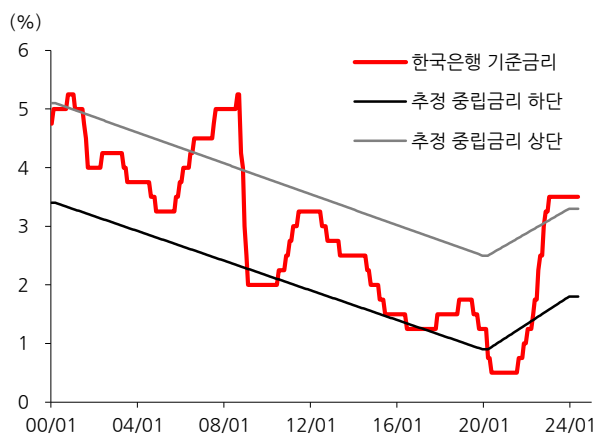
현재 레벨은
인상 사이클 후반부

크게 바뀌지 않을 통화정책 여건, 올라간 중립금리를 고려했을 때 다가올 인하 사이클에서의 종점은 현재의 전망치들보다 높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금리는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까지 반영한 레벨일 것이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 례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나중에 내려갈 뉘을 지금 다 내려간 셈이다.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다.

하단은 막겠다

통화당국은 당장의 금리 하락세를 멈출 힘도, 그럴 생각도 크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려갈 수 있는 하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판단이다.

[그림6] 한국은행 연구원이 추정한 중립금리 추이



주1: 변곡점 간 추세적으로 이동한 흐름, 명목금리

주2: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2024. 도경탁) 인용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향후 중립금리 변동요인

주요 변동요인	고려사항	영향의 방향
인구구조	- 저출생, 인구 고령화 지속	▽
재정정책	-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
	- 고령화 등 의무지출 증가로 생산성 관련 지출 감소	▽
불확실성·위험선호	- 불확실성 완화로 저축 동기 감소, 투자 수요 증가	▲
생산성·잠재성장	- 코로나 이후 기술 진보의 지속성 여부	불확실
	- AI,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가능성	▲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 심화로 고소득층 중심 저축률 증가	▽
기후변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 증가	▲

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2024. 도경탁) 인용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8/19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매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the debate about potentially cutting rates in September is an appropriate one) - 고용과 물가 이중 책무 사이 리스크는 고용 쪽으로 이동 중. 물가는 진전을 이루었고 고용은 일부 걱정할만한 징후들을 포착 - 고용시장 약화는 연준으로 하여금 9월 인하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
8/21	Michelle Bowman (연준 이사)	매파,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완화되며 더 나은 균형을 찾아 나가고 있음 - 최근 물가 관련 추가 진전 확인 - 그러나 여전히 2%를 상회하는, 불편한(uncomfortably) 수준이며 상방 압력도 존재 - 연준은 고용과 물가 모두 균형을 찾아 나간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 - 데이터 한 두개에 과잉반응하지 않고 인내심있게 기다릴 것. 물가는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한 둔화세를 보여야 함. 본인도 정책 기초 변화에 보수적인 입장 견지 중 - 물가가 목표 수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둔화된다면 과잉 긴축 방지를 위한 점진적 금리 인하가 적절 - 임금은 물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상회 -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하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최대 고용 달성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 - 고용 강세가 과장되었을 가능성. 실업률 상승은 이를 바로잡는 징후 중 하나일 수도 있음
8/2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와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금융안정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함 - 향후 몇 달간은 물가의 목표수준 수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경기가 '나빠졌다'는 단어 선택에 신중할 필요. 여전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 - 금리 동결이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금융 안정 필요성이 더 큼. 내수는 인하 폭이나 시간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지만 금융 안정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 -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은 1분기 성장을 서프라이즈의 정도가 예상보다 컸던 것에 기인. 기초적 흐름에는 변화가 없음 - 소비 성장률 전망치(1.8%)는 잠재성장률(2.0%) 감안 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님 - 미국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조금 더 국내 여건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음 -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아닌 금융안정이 목표 - 수출 호조는 IT와 반도체가 주도했으며 물량보다는 가격에 기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는 고용이나 내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수비 부진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도 일부 존재 -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약적 -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시장금리는 하락. 이로 인한 민간 이자 부담도 25bp 하락 -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대비 시장 금리 레벨은 과도하다는 입장 유지.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정도. 그러나 크게 하락한 금리 레벨은 통화정책 기대뿐만 아니라 수급 환경 변화에도 이유가 있음 - 금융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를 고려할 때. 기존 중립금리보다 높을 것 - 정책금융이나 보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위험은 이미 현실화
8/22	Jeffrey 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하 전 추가 데이터 확인 필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고용지표 조정으로 본인의 정책 의견이 바뀐 것은 없음. 조정 부분도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 - 고용시장이 냉각 중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강력 - 기준금리는 과도하게 긴축적인 수준(overly restrictive)이 아님 - 이제는 금리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고 판단 - 대차대조표는 지금 속도보다 빠르게 축소되어도 무방(there's room to reduce balance sheet faster than we are now)

주: 음영 부분은 잭슨홀 미팅 중 나온 발언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8/22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은 대체로 견조.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정상 수준으로 복귀 중. 연준은 이 수준을 지켜야 함 - 고용지표 조정에 특별한 이슈는 부재 - 물가 관련 데이터들은 2% 복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음 - <u>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함(it is soon appropriate to begin cutting rates)</u> - <u>기준금리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속도(gradual, methodical pace)로 인하할 필요</u> - 소비 상황에 불안 징후는 부재
8/22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인하 사이클의 종착점은 3% 부근으로 예상</u> - 현재 통화정책 수준은 적절. 과도하게 제약적이지 않음 - 본인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있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 -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주시 중 - <u>실업률은 5% 바로 밑까지 상승 전망</u>. 물가상승률은 둔화 지속. 그러나 2% 복귀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 시장은 이미 조만간 있을 연준의 행동을 반영 - 양적 긴축의 종료 시점은 시장이 결정. 현재 금융상황(financial stability)에는 큰 문제가 없음 - 고용시장은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the job market has now mostly normalised) -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다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 - 고용지표 재조정에 놀라운 이슈는 없음 - 7월 고용지표는 예상을 조금 벗어났을 뿐(a bit lower than expected, not a lot) - 고용과 물가 리스크는 균형을 찾아 나가고 있음. 연준은 고용에 더 집중하기 시작 - 기준금리는 한번 인하되면 꾸준히 인하될 필요. 본인은 25bp, 50bp 인하 폭을 결정하지 않았음.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할 것 - 여전히 주거 물가는 걱정거리
8/23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만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 - 물가는 확실히 둔화(significant reduction in inflation). 2%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도 커졌음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견조. 이상 징후 부재
8/23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상황 - 7월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흐름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했기 때문. 앞으로도 경제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완화 정도 조정해 나갈 것 - 여전히 물가의 상방 압력이 우세 - 완화 정책 조정 지속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갖고 있음. 정책 기조 전환은 옳은 결정 -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향해 가는 경로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 - 외환시장 충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망에도 마찬가지 - 데이터들이 전망에 부합한다면 기준금리는 2026년 중 중립수준에 도달 가능
8/23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 <u>우리는 질서 있고 조용한 정상화를 원함</u> - <u>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근접(we are close to being ready to cut rates)</u> - 연준의 통화정책은 효과를 보였음. 이제는 통화정책도 정상화에 착수해야 함 - 물가와 관련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현재 수치는 연준 목표와의 괴리가 존재.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은 확신을 더 심어주었음. 물가가 2%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음 - 고용시장은 우리가 상당히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했음을 시사 - 고용지표 부진이 본인 전망이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기준금리 인하 폭은 데이터들이 결정할 것. 본인은 동결부터 50bp 인하까지 모든 옵션들을 고려 중 - <u>Terminal Rate는 3.0% 예상</u>

주: 음영 부분은 잭슨홀 미팅 중 나온 발언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8/23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준금리를 조정할 시간이 왔음(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u> -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강력한 고용시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고용의 추가 냉각은 좋은 소식이 아님 -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은 데이터가 결정할 것 - 현재 기준금리 수분을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 - 물가가 지속적으로 2%에 머무를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졌음 - 고용시장 완화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 더 이상 과열은 없음 - 물가는 상당 폭 둔화되었으며, 목표 수준에 매우 근접 - 연준의 리스크 양상은 변화. 물가의 상방 압력은 줄어든 반면, 고용의 하방 압력은 증가
8/24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we need to start moving rates down)</u> - 인하 관련 준비에 착수해야 하며, 기준금리는 한번 인하되면 꾸준히 내려갈 것 - <u>고용 관련 심각한 징후는 부재. 연준은 실업률이 5%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u> - <u>명목 중립금리는 3%로 추정</u>
8/24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초와 같은 변동성 장세는 다시 나타날 수 있음 - 물가의 2차 파급 여파는 예상 대비 작았음. 조심스럽지만 물가 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 - 인플레이션 전쟁에서의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 여전히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을 상회. 그러나 물가 안정 관련 경제적 비용은 과거 대비 크지 않음 - 중국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 - 긴축 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
8/24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연준 동료들 의견에 찬성 - 통화정책은 금번 긴축 사이클 정점에 위치. 현재 기준금리는 물가가 훨씬 높았을 때나 적절한 수준 - <u>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everything we wanted to happen to get rates down, has happened)</u> -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업률 급등 조짐도 보이기 시작 - 물가상승률이 2% 위에서 고착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 본인은 연준이 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지 모든 방면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고용시장에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각되는 상황. 지금부터 연준은 고용 책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 - 경제 관련 몇몇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들도 존재 - 기준금리 인하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님. 경로가 핵심

주: 음영 부분은 잭슨홀 미팅 중 나온 발언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6	27	28	29	30
<p>영국 휴장(Bank Holiday) 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p> <p>(한국) 국고 5년 입찰(1 조 6,000억원)</p> <p>(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17.5, 전년:-18.5)</p>	<p>(한국) 국고 20년 입찰(4,000억원)</p> <p>(미국) 6월 FFA 주택가격지수 (전월바: 0.0%, 전년바: 5.7%) 6월 Case 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전월바: 0.3%, 전년바: 6.8%)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 100.0, 전월: 100.3, 전년: 108.7)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17.0, 전년:-7.0)</p> <p>(중국) 7월 산업생산 (전월바:-22.7%, 전년바: 3.6%)</p>	<p>(미국) 2년 국채 입찰 (4.43%, 간접: 76.6%, 응찰률: 2.81배)</p> <p>(유로존) 7월 M3 통화급 (전월바: 0.8%, 전년바: 2.2%)</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Bosch 아틀란타 연은 총재(메파, O) 연설</p> <p>(미국) 5년 국채 입찰 (4.12%, 간접: 67.2%, 응찰률: 2.40배) 2분기 GDP(잠정) (예상: 2.8%, 전기비연율: 2.8%) 7월 미결주택 판매 (전월바: 4.8%, 전년바: -7.8%)</p> <p>(유로존)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13.0, 전년:-16.0)</p>	<p>Bosch 아틀란타 연은 총재(메파, O) 연설</p> <p>(한국) 7월 소매판매 (전월바: -3.3%, 전년바: -3.6%) 7월 광공업생산 (예상 전월바: 0.0%, 전년바: 7.6%) (전월바: 0.5%, 전년바: 3.8%)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 100.8, 전년: 99.5) 8월 수출입(9/1) (수출 전월바: 0.3%, 전년바: 13.9%) (수입 전월바: 9.8%, 전년바: 10.5%)</p> <p>(미국) 7년 국채 입찰 (4.16%, 간접: 74.4%, 응찰률: 2.64배) 7월 PCE, Core PCE (PCE 예상 전월바: 0.2%, 전년바: 2.6%) (Core 예상 전월바: 0.2%, 전년바: 2.2%) (PCE 전월바: 0.1%, 전년바: 2.5%) (Core 전월바: 0.2%, 전년바: 2.6%) 8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예상: 67.8, 전월: 66.4, 전년: 69.4)</p> <p>(유로존) 7월 실업률 (전월: 6.5%, 전년: 6.5%)</p> <p>(중국) 8월 제조업 PMI(8/31) (예상: 49.2, 전월: 49.4, 전년: 49.7)</p>
9/2	3	4	5	6
<p>미국 휴장(노동절)</p>	<p>(한국) 8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 0.3%, 전년바: 2.6%) (Core 전월바: 0.3%, 전년바: 2.2%)</p> <p>(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 46.8, 전년: 47.6)</p>	<p>(미국) 7월 공장 수주 (전월바: -3.3%, 전년바: -3.6%) 7월 내구재 주문 (전월바: -6.7%, 전년바: -11.2%)</p> <p>(유로존) 7월 PPI (전월바: 0.5%, 전년바: -3.2%)</p>	<p>Bullock RBA 총재 연설 미국 연준 Beige Book</p> <p>(한국) 2분기 GDP(잠정) (전분기바: -0.2%, 전년바: 2.3%)</p> <p>(유로존) 7월 소매판매 (전월바: -0.3%, 전년바: -0.3%)</p>	<p>(한국) 7월 경상수지 (전월: +114.7억\$, 전년: +44.3\$)</p> <p>(유로존) 2분기 GDP (전분기바: 0.3%, 전년바: 0.6%)</p> <p>(미국) 8월 실업률 (예상: 4.2%, 전월: 4.3%, 전년: 3.8%)</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